

韓國生藥報

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.

發行人 秉 表 東 守
編輯人 金 政 坤
印刷人 金 政 坤
編輯局長 表 永 斗

發行所
社團 韓國生藥協會
法人
〈우편번호 130-062〉
서울특별시 동대문구
제기동 1051
☎ 967-8133
965-9551

(每月 初日發行)

〈協會指針〉

農民所得增大
生産輸出增大
國民保健向上

會長 訓

1. 最大의 봉사
1. 最大의 협동
1. 最大의 노력

(無料配布)

中央共販場

☎ 967-4984
☎ 967-8133 사무실

共販場 早期 活性化 되어야

지혜로운 販路 擴大의 公正·信賴度 向上으로 系統 出荷 참여 誘導 해야!

- ◎... 會員들의 組織活用 인식과...
- ◎... 系統 出荷에 對한 自發的 參與...
- ◎... 與 없이는 活性化를 바랄 수...
- ◎... 없다.



◇ 中央共販場 全景

風前燈火와 같은 상황속 라 會員들을 맞이하게 되
어서도 꺼지지 않고 數年
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면서
도 쓰러지지 않고 15년의
경험을 쌓아온 協會中央共
販場은 오늘날 도시 새
販場은 오늘날 도시 새
로운 각오와 모습으로써
없었기에 많은 去來者들의
不不満을 들어왔고 드디
어는 去來者들의 日할로
實에 何인자가 다음 經
? 二元的 經營이 불가피
한데다가 그나마 共販場은
協會死活的 기반이라고도 할
수 있기 때문에 經營을 잘
하고 못하였다는 結果에 더
라 會勢변화가 필연적으로
생긴 것이다고 볼수 있다.
協會는 加入會員의 기본
회비와 부대사업(생약위탁
판매로서 얻어지는 수수료)
에 의한 收入으로 運轉할
수 밖에 없는 非營利團體
이기 때문에 中央共販場經
영자의 지혜로운 去來질서
유지로서 많은 會員들이
發的으로 系統 出荷에 參與
하고 活用할 수 있는 新
로운 協會像을 정립에 나
가기를 우리는 切實히 크
게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.
따라서 새로운 經營者를
맞이하러서 지난날의 共販
場운영상의 諸問題點을 反
省하고 時代의 應答과 期
待에 副應하는 轉換期를 구
속하는데 모든 힘을 쏟으
야 할 것으로 본다.
※諸問題點을 例示한다면
첫째·最初 段階에 있어
資本金의 尠缺한 投資
이 組織의 체제와 명의만
을 利用하여 自己利潤만을
추구하려는 過渡期的 思考
는 正統을 되돌이키는 데
不適한 것이다.
둘째·合辦한 基本資本의
준비금이 充分한 財源의
單位金을 利用하는데 困難
한다면 많은 去來者의 不
滿을 낳게 되고 드디어는
共販場으로서의 信賴를 더
욱 상실하게 될 것이다.
셋째·先代經營者가 死後
 못하고 代價를 지불이원
할지 못한다면 去來이탈자
는 必然히 늘어나게 되어 不
實을 면할수 없게 될 것
이다.

韓方스프레

6

3. 신물과 공기와 내장
기(氣)가 생산되는 본
바탕인 위장의 소화력 원
활히 시키지 못한다면 기
의 생성양에의 머무는 것
위와 표의 관계에 있는
비장의 작용이 나빠지고
발의 동맥이 자유롭지 못
해진다. 즉 위장기능이 불
능해진다. 위장기능이 불
능해지면 신장(腎臟)이 일
어나고 기가 쇠하며 뇌
력이 약해진다.
(肝經)이 나빠져서 정신
은
작은이나 운동기능에 사기
(장)의요인(들)가 가차차 버
리게 된다.
이러한 위는 만병의 근
원이라고 결코 과언이 아니
를 제올리하지 않도록 한
것은 이러한 까닭에서였다.
즉 다들 내장기관의 순
화적인 유통의 변화가 생
기면서 그 기능을 충분히
발휘하도록 버려두지 않
배워요인을 수반하기 때
문인 것이다.
그런데 때문에 위장보
호와 기의 진작을 위해 하
는 어떤 식사를 해야 하
는가에
그런데 위장의 위장을 소
의 기능에도 위장의 위
의 기능에도 위장의 위
의 기능에도 위장의 위

4. 정념(情念)과 내
장(內臟)
「건강한 정신은 건강한
신체에서」라는 표어를 흔
히 보아 왔다. 이 말은 아
무리 정신이 건강한도 신
신을 움직이는 주체인 신
체가 말짱을 들지 못하면
사유(萬事休矣)라는 뜻
이겠으나 한결을 더 나아
가 살펴보면 신체가 건강하
지 못하면 건강한 정신적
을 이룰 수 없다. 이는
을 나타내고 있다. 위
이상과 같이 동양의학에
서는 정신과 내장의 작용

본의 준비없이 과욕적인 의
욕만으로 參與하게된 任
들게도 일차적인 責任이
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
會員이 自發的으로 찾아
드는 公正하고 信賴性
있는 共販場을 經營할 수
있다면 任期단료라고
해서 배정할 수 있었지만
? 二元的 經營이 불가피
한데다가 그나마 共販場은
協會死活的 기반이라고도 할
수 있기 때문에 經營을 잘
하고 못하였다는 結果에 더
라 會勢변화가 필연적으로
생긴 것이다고 볼수 있다.
協會는 加入會員의 기본
회비와 부대사업(생약위탁
판매로서 얻어지는 수수료)
에 의한 收入으로 運轉할
수 밖에 없는 非營利團體
이기 때문에 中央共販場經
영자의 지혜로운 去來질서
유지로서 많은 會員들이
發的으로 系統 出荷에 參與
하고 活用할 수 있는 新
로운 協會像을 정립에 나
가기를 우리는 切實히 크
게 期待하고 있는 것이다.
따라서 새로운 經營者를
맞이하러서 지난날의 共販
場운영상의 諸問題點을 反
省하고 時代의 應答과 期
待에 副應하는 轉換期를 구
속하는데 모든 힘을 쏟으
야 할 것으로 본다.
※諸問題點을 例示한다면
첫째·最初 段階에 있어
資本金의 尠缺한 投資
이 組織의 체제와 명의만
을 利用하여 自己利潤만을
추구하려는 過渡期的 思考
는 正統을 되돌이키는 데
不適한 것이다.
둘째·合辦한 基本資本의
준비금이 充分한 財源의
單位金을 利用하는데 困難
한다면 많은 去來者의 不
滿을 낳게 되고 드디어는
共販場으로서의 信賴를 더
욱 상실하게 될 것이다.
셋째·先代經營者가 死後
 못하고 代價를 지불이원
할지 못한다면 去來이탈자
는 必然히 늘어나게 되어 不
實을 면할수 없게 될 것
이다.

祝 發 展

지부장	이종철	충청북도 지부
의총장	이재식	(중앙본부이사)
의총장	이명규	
의총장	김운호	
의총장	장지홍	
의총장	이광우	
의총장	이심식	
의총장	최종운	
의총장	이환경	
의총장	정진석	
의총장	정진석	

1989년 5월 20일